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3주일
제32권 22호(나해) 2012.4.22

[묵상]



“평화가 너희와 함께!”

무섭고, 두렵고,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어는 것.
비단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보지 않고는 믿으려하지 않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는
그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기에
성경 풀이도 해 주시고
빵도 떼어 나누어 주시고
구명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미심쩍어하는 제자들을 위해
구운 물고기 한 토막도 드시고
‘바로 나다.’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해야 할 유령이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임을 깨닫도록,
저희 삶의 어두움과 불안을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새롭고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끝까지 애쓰신 예수님께서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그 증인으로 초대하십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미사지향

토 요 특전미사	(연) 권순봉 요안나 (생)
주 일 낮 미사	(연) 송공량 카타리나, 이호순 프란체스카, 엄익찬 안토니오, 김명숙 요안나, 이상일 요셉, 박영준 안토니오, 고준희 제임스, 한장치 요셉, 윤준의 스킨라스티카, 신태동 요아킴, 정기범 베드로, 이정행 테레사, 이승림 요셉 & 이석은 마리아, 문순금, 여용녀 아숨다 & 정 한 스테파노, 김두철 아브라함 (생) 한장주 요아킴 & 한경숙 안나, 엄세종 그레고리오,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신대철 알베르토, 전안나 & 전복래 테레사 가정, 한장환 안토니오, 김성종 토마스, 나성흠 안드레아, 이수경 말찌나,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원윤경 루시아, 김 명 스텔라, 오명섭 미카엘, 이근모 마리노 & 이행자 리드비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Apostles) 3,13-15,17-19

화답송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는 알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우신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제 2독서 요한 1서(1 St. John) 2,1-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루카(St. Luke) 24,35-48

영성체송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의
용서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64	164	168
봉헌	270	272	269
성체	301	301	301
파견	170	170	16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신학의 영혼”

이 점에서 교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하느님 말
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음을 기쁘게 인정하였고, 투신과
노력과 능력으로 현대가 성경 연구에 제기하는 복잡한 문제들
을 대면하며 성경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현저한 기여
를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수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에
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신앙
교리성과 긴밀한 유대 안에서 성경 연구와 관련된 특수한 문
제들을 다루는 데에서 수준 높은 공헌을 계속해 온 교황청 성
서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현재의 성경 연구 현황과 신학 영역
에서 성경 연구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하여 자문해야 할 필요
를 느꼈습니다.

실상, 교회 사목 활동의 효과와 신자들의 영성 생활은 주석학
과 신학 사이의 풍요로운 관계에 크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러므로 이 주제에 대하여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논의에서
나타난 몇 가지 고찰들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성경 연구의 발전과 교회 교도권

32). 무엇보다 먼저, 역사 비평적 주석과 근래에 발전한 다른
본문 분석 방법들이 교회의 삶에 가져다준 유익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의 성경 이해에서, 이러한 방법들에 주의
를 기울이는 것은 필수적이며 강생의 현실성에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요한 복음서 1장 14절에 표현된 그리스도
교의 원칙, 곧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Verbum caro factum
est.)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필수적인 한 차원입니다. 구원 역사는 신화가 아니라
참된 역사이며, 그래서 진지한 역사학의 방법들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는 이러한 탐구 방법들에
대한 지식과 적절한 사용을 요구합니다.

비록 어디에서나 같은 식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연구 분야에
서 이러한 감각은 현대에 크게 발전한 것이지만, 건전한 교회
전통 안에는 언제나 “문자”의 연구에 대한 사랑이 있어 왔습
니다. 유럽 문화의 기반을 마련한 수도승 문화는 말씀에 대한
관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갈망
은 말씀의 모든 차원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계속>

진정한 부활은 영원한 희망을 간직하는 것

20여 년 전 한국선원 한 명이 홍콩을 떠나 대만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새벽에 갑판에 나가 그날의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만 큰 파도가 갑판을 덮쳐 바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파도를 헤치고 배를 향해 필사적으로 나가며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지만 배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망망대해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구명조끼는 고사하고 어느 것 하나 몸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곧 추운 파도보다 더한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시간이 지나며 근육마비 증세마저 나타나 물에 떠있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힘들어지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순간 그는 어린 딸들과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바다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18시간 동안의 표류 끝에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 벡터 프랭클은 오늘날 가장 무서운 절망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는 문화와 물질문명이 발달해서 의식주는 더 풍족해졌지만 많은 사람이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 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구운 물고기를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믿음을 잃고 헤매더라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됩니다. 또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우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길은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진정한 행복과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비로우신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 오십니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떠서 그분을 한번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내 생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꽃이 진다고 눈물짓지 마세요.
겨우내 기다렸다가 열흘도 견디지 못하고
화르르 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마음일 뿐입니다.
꽃은 지금 제 생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으로
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 되어 미련 없이 지는 꽃을 밟고 서서
내 생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글 : 이영 아녜스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스테파노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4 -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T-셔츠 공모전

오는 7월27일부터 3일간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고등부 신앙 대회에 입을 T-셔츠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출품작중 하나를 선정하여 셔츠 디자인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신앙대회 참가자(8-12학년)
- 주제 : The Eighth Day(Isaiah 43.1)
- 당선작 상품 : 참가비 중 \$100 공제
- 마감 : 5월31일(목)
- 제출 : stephanieyoonpark@gmail.com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디자인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 이벤트코디 ☎(310)613-9116

◆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시

- 시간 : 5월20일까지 매주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장소 : 신부님 집무실(성전입구)
- 교사 : 김정심 크리스티나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교무주임 (310)780-8895

◆ 고등부 전진성사 일정

- 일시 : 5월26일(토) 오전 10시
- 리허설 : 5월18일(금) 오후 7시30분
- Reflection : 5월25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마가렛 매리 본당
- 대상 : 10학년
- 문의 : 빈센트 신 전진담당 교사 ☎(424)903-6637

남가주 소식

◆ 가톨릭 청년모임 10 Spoons(십시일반) 일일카페 운영

- 목적 : 아프리카 말라리아 환자 모기장구입 지원금 모금
- 일시 : 4월28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카페
- 기부금 : \$10(맛있는 샌드위치 제공)
- 문의 : 김용철 실바노 ☎(213)321-4632

◆ 남가주 제25차 성령안의 생활세미나

- 일시 : 5월10일(목)~13일(주일) 3박4일,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정광호 도미니코 신부(보스턴 한인천주교회 주임)
- 참가비 : \$150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장 및 봉사회총무☎(213)435-7570

◆ 송봉모 토마스 신부의 성경대학 2학기 CD 판매 안내

- 내용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2학기 과정 강의내용 수록 공판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 예수님을 잘 따르기위하여
- 금액 : 1세트당 \$20
- 문의 :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323)731-4433
고영희 데레사 ☎(213)249-3603

소공동체 4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장정진 배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유현자 안나 320-3697 4/20(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킬립보 213-718-9262 4/14(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배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박인식 토마스 953-9597 4/15(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상원 야고보 370-8707 4/14(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이기숙 엘리사벳 650-1515 4/19(목)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최경숙 수산나 320-0855 4/20(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희자 마리아 634-6923 4/12(목) 오전 10시30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8 4/21(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오세원 아타나시오 327-8035 4/21(토) 오후 6시30분, 강당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새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박진수 스테파노 808-5005 4/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4/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첸시아 482-9108	안민수 배드로 544-8908 4/11(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다니엘 892-1213 4/13(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도영옥 수산나 971-8866 4/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	--

☞ 미사에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꼭 참례하여야 주일미사를 지킨 것인가요?

신자라면 적어도 10분 전에는 성당에 도착해서 미사가 시작될 때까지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한 후 경건하게 미사참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미사 안내를 하다보면 미사에 늦게 참석할 뿐만 아니라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찍 나가는 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사에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꼭 참례하여야 주일미사를 지킨 것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부님의 강론 도중 미사에 들어와 미사에 참례하고도 주일을 지킨 것으로 잘못 알고 영성제 하는 신자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요즈음 미사에 참례하는 일부 신자들의 성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많이 돌리곤 합니다. 미사에 습관적으로 늦게 오고, 미사 중에 옆사람과 잡담을 하기도 하고, 주례사제보다도 먼저 퇴장하기도 하고... 더욱이 여름철이면 옷차림도 문제가 되지요. 너무나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때로 씁쓸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이나 교무금 납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물론 각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미사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늦게라도 참석한 것이 참석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문제는 늦게 온 경우 언제부터 참석해야 유효한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 역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고 또 본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는가, 그리고 비록 늦게 왔지만 얼마나 진지하게 참례했느냐에 달린 것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주일미사의 경우 늦어도 강론 전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 : 서울대교구 후보 자료실

☞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안계신 곳이 없는데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느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십니다. 다윗은 하느님이 안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당신 얼굴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을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 놀의 날개를 달아 바다 맨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시편 139, 1~10)

심지어 지옥에도 하느님은 계십니다.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지옥은 하느님이 만드셨다고보다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지옥 같은 상황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지옥 같은 죽음의 십자가도 부활의 꽃이 만발한 구원의 십자가무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시편 23, 4)

◆도움말 : 권순호 신부<부산교구 남산성당 부주임>

☞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까?

남편에게 계속 같은 잘못을 합니다. 신앙인이기에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노력해왔지만 항상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잘못된 이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오히려 잘못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역시 나에게 잘못된 이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내 용서가 오히려 그 사람이 변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흔히들 용서를 ‘무죄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해주거나, 잘못을 보고도 참고 눈감아 주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오히려 ‘유죄선고’입니다. 죄가 없다면 용서할 필요도 없겠조.

용서는 죄인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진심으로 바라고,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아직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한 경우라면, 무엇이 잘못된지 알게 해주는 것도 용서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판단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을 단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남편의 변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 홍성민 신부

<부산교구 임호성당 보좌 신부>